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과 공동체의식에 따른 여성의 안전의식

박영희* · 민소영**

◀ 요약 ▶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공동체의식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총 38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접조사 자료와 조사대상 여성이 거주하는 20개 동의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변수와 개인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여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 특성 중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높아 인구 구성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여성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강할수록 여성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주변 및 주거 환경개선, 외국인과의 상호호혜적인 지역 문화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여성, 안전의식, 다층모형분석, 지역사회환경, 공동체의식

* 주저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pyh0539@hanmail.net)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graminso@naver.com)

1. 서론

거주지 주변의 생활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영위하는 곳이다. 통근·통학과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인구의 3/4이 주로 거주지 주변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진, 2014).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골목길과 동네 곳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두려움과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 생활의 터전인 지역사회 공간은 모두에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적인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장미혜 외, 2013). 예를 들어, 야간이나 혹은 호젓한 시간에 똑같이 공원의 의자에 앉아서 쉬고 싶을 때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은 혼자서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더 느끼면서 이용을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원이라는 공적인 지역사회 공간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닌 셈이다. 연구에 의하면(Porter et al., 2012), 여성일수록 범죄의 피해자가 될 실제 확률과 무관하게 범죄 피해의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즉,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크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생활공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만들 수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안전은 여성 개인의 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변의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해체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Sampson et al., 1997; Markowitz et al., 2001). 사회해체이론에 의하면,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인구 이동성, 그리고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범죄나 혹은 주민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빈곤과 같

은 경제적 결핍이나 빈번한 인구이동, 그리고 다양한 인구 구성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해체를 진행시키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기능을 상실시켜서 주민들의 상호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킨다. 거주지역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해체가 심화될수록, 주민들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하는 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속에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사회유대감이나 공동체의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객관적 환경 지표인 빈곤, 거주이동성, 인구 구성의 다양성 변수를 활용하여 범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두려움이나 안전의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류준혁·정승민, 2011; 박순진, 2012; Donder et al., 2012; Porter et al., 2012).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는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사회 유대감이 강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빈곤, 거주이동성, 인구 구성의 다양성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 내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안전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안전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규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여성을 초점화하여 이들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수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해체이론을 근거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요소를 동시에 측정하여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일상적 생활이 펼쳐지는 공간 속에서 인지되는 여성의 안전의식에 초점을 두고자,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집과 동네 주변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구조적 환경 변수도 동단위 수준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외국의 경우 보다 세밀한 수준의 지역사회 지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개인이 인지하는 지역사회 특성과 객관적인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수준 분석 연구가 활발하다(Sampson & Groves, 1989; Sampson et al, 1997). 반면,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 국내 연구들의 대다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일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이윤호, 1996; 정승민, 2011; 차훈진·정우일, 2013). 물론 일수준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지역사회 특성 외에 객관적으로 수집되는 지역사회 환경 지표를 활용

한 다중 모형 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김하늘, 2011)도 있다. 그러나 분석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함으로써 밀착된 생활공간이 갖는 환경적 특성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여성의 안전의식에 대한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 지역사회 환경은 공동체 의식으로, 객관적 지역사회 환경은 빈곤, 거주이동성, 인구가질성 지표로 측정하여 살펴본다. 특히, 객관적인 지역사회환경 변수를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일상적 생활이 펼쳐지는 공간인 동네 수준의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미세한 수준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물론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인을 탐색하고 필요한 개입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이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외국의 지역사회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특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다른 지역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느끼는 안전감은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차적 토대가 될 것이다. 동시에 다층 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에서 인지하는 주관적인 지역환경 외에 동 단위 지역수준의 객관적 환경 변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안전의식의 결정 요인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안전과 여성

안전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우선 국어사전에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Fido & Wood, 1989; 이재식, 1997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다. 반면에 주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Cox & Cox, 1996; 이재식, 1997 재인용). 이렇듯 객관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주관적 인식까지 안전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안상수 외(2010: 17)는 여성 대상으로 존재하는 '실제 성폭행 발생위험'과 여성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 인식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포괄한 모든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로 여성안전을 정의하였다.

여성들은 실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과는 상관없이(Schafer et al., 2006), 남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 두려움을 느끼며(김홍순, 2007; 박순진, 2012), 성폭행과 성희롱 발생가능성도 더 높다고 인식한다(장미혜 외, 2008). 이를 범죄-피해 패러독스(Skogan & Maxfield, 1981)¹⁾라고 불리는데, Ferraro(1995)는 이러한 현상을 '성폭력의 그림자 명제(the shadow of sexual assault thesis)'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범죄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여성들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범죄피해 두려움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안전은 여성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서 가정과 지역사회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에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의식이나 범죄 두려움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범죄와 안전 문제로부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성에 비하여 가사나 돌봄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며 일상을 보내야 하는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

이렇듯 여성 안전의 의미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의 안전이나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여성의 안전과 위험의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여성의 안전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도 연결된다. 여성의 안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성폭행이나 범죄 등과 같은 실제적 위험에 초

1)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untree, 1998; Alvi et al., 2001 재인용).

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범죄두려움과 같이 여성이 스스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 위협으로 보는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여성의 안전을 밝힌 국내연구들은 주로 성범죄두려움(정승민, 2011; 이재영·유영재, 2014), 범죄두려움(김지선, 2004; 김은영, 2012; 박순진, 2012; 차훈진·정우일, 2013),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전반적인 여성안전에 대한 의식(장미혜 외, 2008; 박금식 외, 2011) 등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 여성안전을 측정하고 있다.

여성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은 객관적 측정에 비하여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데 더 타당한 접근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여성이 인식하는 위협이나 안전은 여성 자신의 주관적인 요소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된 상황 맥락적인 개념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위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이 인지하는 안전은 여성 자신의 지식, 실제 범죄경험, 환경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Alvi et al., 2001)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율과 같은 객관적 개념이 아니라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남성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여성의 안전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Ferraro, 1995). 즉, 여성안전에 대하여 단지 성폭력 발생률이나 가족폭력 피해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현실적인 안전 위협요인으로부터 여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장미혜 외,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여성안전의 개념을 객관적 지표가 아닌 여성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위협이 없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환경과 여성 안전

여성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차원을 넘어서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성안전을 개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안전도시 건설 등의 실례(장미혜 외, 2008; 박금식 외, 2011)는 개인수준을 넘어서 지역차원에서 여성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위협이 없는 지역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기 때
문이다(김홍순, 2007).

이처럼 여성안전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은 사회
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해체
이론에서 의미하는 사회해체란 주민의 공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통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지역 내 범죄, 비행 등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의 안
전에 위협이 가해진 상태를 의미한다(Shaw & McKay, 1942; Sampson & Groves, 1989 재
인용). 그리고 사회해체현상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경제적 빈곤, 인구구성
의 이질성, 거주이동성 등 지역의 구조적 환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정진
성·곽대훈, 2008; 김준호 외, 2010; 박정선·이성식, 2010; 정진성·박현호, 2010; 정진
성·강욱, 2013; Krivo & Peterson, 1996; Kovandzic et al., 1998). 이후 지역 내 안전이나 범
죄는 사회해체 이론에서 제시하였던 지역의 구조적이고 객관적 환경 외에 지역주민
사이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과 결합되어 수정·발전되었다.
사회적 과정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인 집합적 효능감을
의미한다. 지역주민 사이의 응집력과 비공식적 통제 기능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감이
발달되면 지역 내 사회해체가 감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Markowitz et al,
2001). 말하자면 기존의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지역사회환경 외에도 주민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과정인 주관적 지역사회환경을 포함시켜서 사회해체를
설명해야한다는 것이다(Sampson et al., 1997; Ross & Jang, 2000). 실제로 Sampson 외
(1997)의 연구에서 초기 사회해체이론이 제시하였던 구조적 변수인 지역의 빈곤, 거주인
구의 이질성, 주거이동성과 주관적 변수인 지역사회응집력을 결합하여 범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주민 사이의 응집력과 더불어
지역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비공식적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것이 지역의 범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 외에도 지역주민 사이의 응집
력이나 비공식적 통제의 기능 등 주관적 지역사회환경 변수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안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Ross와 Mirowsky(2009)도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게 되면 주민사이의 응
집력이 약화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며 의심할 뿐만 아

나라 서로 돕는 비공식적 상호작용 또한 활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지역에 대한 불신은 범죄로부터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번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안전의식은 지역이 갖는 구조적인 환경 외에도 이처럼 지역 내 주민 사이의 응집력, 즉 유대감 혹은 공동체의식 등의 인지적이고 주관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해체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과 주관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비록 지역사회의 구조적 및 주관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여성 안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하나, 관련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사회 환경과 여성의 안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주관적 환경은 앞서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하였던 지역주민의 응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응집력이란 지역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지역사회의식, 정체성, 우리의식,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여 노력하며 하나된 느낌을 갖는 심리적 상태(Buckner, 1988)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복합적 심리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의식(McMillian and Chavis, 1986)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과 안전

사회해체이론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으로 빈곤, 인구 구성의 다양성, 거주 이동성을 제시한다. 우선 지역의 경제적 빈곤과 관련하여 Kovandzic 등(1998)의 연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지역의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와 Jarjoura(1989)의 연구에서도 지역의 경제수준 등은 개인의 절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가 증가하며(정진성·강욱, 2013), 경제적 불이익은 중·대도시 지역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졌다(정진성·곽대훈, 2008).

그리고 인구집단의 다양성은 지역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ountree & Warner, 1999). 신우화와 신우진(2012)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외국인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이동성을 보여주는 주거불안정은 범죄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된다(Sampson & Groves, 1989).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불안정이 높을수록 주민들 간의 유대가 약화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가 소홀해져, 범죄피해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김준호 외, 2010)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경제적 불이익, 세입자비율, 외국인 비율은 살인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정진성·박현호, 2010). 이외에 사회경제수준과 주거불안정성과 같은 지역특성은 가구범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박성훈, 2011), 오히려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두려움이나 범죄피해가능성이 높고(박정선·이성식, 2010), 여성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재영·유영재, 2014).

이렇듯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범죄율이나 범죄피해 등 안전에 대해 살피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로부터 보다 더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다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의 구조적 특성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인구이동률, 외국인비율 등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있다(김하늘, 2011). 그러나 지역사회의 구조적 환경의 분석 단위를 시군구로 넓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는 보다 실제적이고 세세한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2)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과 안전(safety or security)

지역사회가 도시화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안전과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Wilson-Doenges, 2000).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인지한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두거나 공동체 의식과 유사한 개념인 지역에 착, 지역유대, 사회유대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안전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Ferguson & Mindal, 2007; Franklin et al., 2008).

예를 들면, Schweitzer 외(1999)의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지역무질서와 집합효능감

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민경, 2013). Franklin 외(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애착과 소속감이나 유대 등을 의미하는 사회통합요인이 주관적으로 인지된 위협과 범죄피해 염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lvi 외(2001)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인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더 많이 애착을 갖고 만족하는 경우, 감정적인 범죄두려움은 물론 인지된 범죄위험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erguson & Mindal, 2007).

하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McCrea 외(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지역사회 무질서 또는 지역사회 구조 등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공동체의식은 범죄두려움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민(2011)의 연구에서도 지역유대가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으로 지역사회유대가 강할수록 주거침입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지역유대가 강할수록 오히려 지역구성원의 잦은 접촉을 가져와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류준혁 · 정승민, 2011).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 속에서 지역 내 공동체의식과 안전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외국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의식과 안전과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일부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단일수준에서 개인이 인지한 지역응집 변수를 이용하여 범죄공포나 두려움과의 인과성을 살펴보고 있다(이윤희, 1996; 정승민, 2011; 차훈진 · 정우일, 2013). 그러나 단일차원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여성의 안전의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이 인지하는 공동체의식이 여성의 안전 의식에 미치는 역할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공동체의식-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해 활용된 분석 자료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와 여성이 거주하는 동의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인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수원시, 2006). 또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내의 전입과 전출도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그리고 외국인 규모도 31개 시군에서 안산 다음으로 높다(2015년 현재). 더불어 역사관광 문화도시인 만큼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이 혼합되어 신구세대의 갈등 및 지역에 대한 복잡한 정체성을 내포할 수 있다. 더구나 빈곤층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개발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에 생활수준이나 생활환경에 편차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설문조사 자료는 2010년 수원시에서 이루어진 지역주민욕구조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지역주민욕구조사는 수원시 4개구 20개 동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4세 미만의 여성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여성주민의 표집 과정은 먼저 수원시의 4개구 39개동(2010년 당시) 중 각 구별로 5개의 표본 동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표본 동 선정은 인구 규모,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등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각 구별로 수원시의 인구에 비례한 할당 표본수를 추출한 후에 구 단위의 표본수를 표본 동에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아파트로 주거형태를 구분하여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집 주민수를 할당하였다. 각 표본 동별로 할당된 표본 주민수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통계조사요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직접 가정 방문을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조사에 앞서 지역주민 욕구 조사의 취지와 목적 및 비밀보호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86명의 여성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동별로 총 거주인구대비 약 0.04%에

서 약 0.13%가 표집되었다.

동 단위 사회지표는 수원시사회복지욕구조사에 응답한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인 20개 동을 기준으로 면접조사가 실시된 2010년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로 국가통계포털, 수원시 통계연보DB, 수원시청 통계포털 및 수원시 행정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성과 측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안전의식’으로, 여성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동의 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지를 묻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안전하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안전의식의 Cronbach’s α 값은 .782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공동체의식과 지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공동체 의식은 여성 개인수준에서 측정²⁾하였으며, McMillian & Chavis(1986)와 Nasar & Julian(1995)의 연구를 토대로 김경준(1998)이 수정·개발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의 하위요소를 포함하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의

2) 공동체의식과 유사한 개념인 지역사회유대나 지역사회응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이 변수들을 개인수준(Ross & Jang, 2000; Cheung & Leung, 2011) 혹은 지역사회수준(Sampson et al., 1997; Cutrona et al., 2000)에서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다. 비록 지역사회수준에서 측정하더라도 개인수준에서 조사된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려는 지역단위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Ross와 Jang(2000)은 개인수준의 값과 지역사회수준의 값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곽현근·노병일, 2007)에서는 지역사회 유대를 개인수준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의 독립변수는 행정체계를 기준으로 '동'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동의 2010년 당시 지역사회의 구조적 지표로 측정하였다. 포함된 변수는 경제적 빈곤, 인구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거주이동성이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빈곤은 지역 내 경제적 빈곤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동 전체인구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차상위 자활대상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사회는 빈곤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구구성의 다양성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지역의 인종이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의 거주이동성은 해당 동의 전체인구 가운데 전입인구 수와 전출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사회의 거주 이동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기존의 안전관련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혼인상태, 주거 소유형태, 취업상태를 포함하였다(김준호 외, 2010; 류준혁·정승민, 2011; 박순진, 2012; 이재영·유영재, 2014). 예를 들어, 연령이 증가할수록(김준호 외, 2010; 박순진, 2012; 이재영·유영재, 201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김준호 외, 2010; 박순진, 2010) 개인범죄피해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범죄 두려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류준혁·정승민, 2011) 그리고 기혼자일수록(류준혁·정승민, 201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취업여부(김준호 외, 2010)나 주거형태(류준혁·정승민, 2011)가 범죄피해나 범죄 두려움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총소득을 총 8개 범주(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로 구분하여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기혼, 동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혼, 미혼, 별거, 사별)로, 주거 소유형태는 자가와 자가가

아닌 상태(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임대 등)로, 취업상태는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변수 수준	변수 구분	변수	변수의 설명과 측정
지역 수준	독립 변수	경제적 빈곤	(동별 기초수급자수+동별 차상위 자활대상자수)*100 / 동별 인구수(%)
		인구구성의 다양성	동별 외국인수*100 / 동별 인구수(%)
		거주이동성	(동별 전입인구수+동별 전출인구수)*100 / 동별 인구수
개인 수준	종속 변수	안전의식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안전성, 현재 살고 있는 동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총 2개 문항(5점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값 (Cronbach's α=.782)
	독립 변수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에 관한 총 17개 문항(5점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값 (Cronbach's α=.900)
	통제 변수	연령	만 나이 기준(연속변수)
		교육수준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소득수준	가구원 월 평균 총소득(100만 원 미만=1, 100만 원~200만 원=2, 200만 원~300만 원=3, 300만 원~400만 원 미만=4,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5,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6,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7, 700만 원 이상=8)
		혼인상태	배우자 유(기혼, 동거)=1, 배우자 무(미혼, 별거, 이혼, 사별)=0
		주거 소유형태	자가=1, 자가 아님(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영구임대, 기타)=0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우선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살펴보기 위해 HLM 6.2를 활용하여 2수준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수준과 이러한 개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수준을 포함하는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

계구조를 가진 자료의 경우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비교적 동질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므로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되는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추정하는 경우 오차항의 상관성이 높고 표준오차를 과소예측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용된 위계선형모형은 오차항의 독립성이라는 가정에서 자유로우며, 종속변수의 분산을 각 수준 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계선형모형의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³⁾을 통해 개인수준에서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역수준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독립변수 투입 시 모형에 포함된 절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속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하였다⁴⁾.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 1) :

$$Y_{ij}(\text{안전의식}) = \beta_{0j} + \beta_{1j}(\text{연령}) + \beta_{2j}(\text{교육수준}) + \beta_{3j}(\text{소득수준}) + \beta_{4j}(\text{혼인상태}) + \beta_{5j}(\text{주거 소유형태}) + \beta_{6j}(\text{취업상태}) + \beta_{7j}(\text{공동체의식}) + R_{ij}, R_{ij} \sim N(0, \sigma^2)$$

지역수준(Level 2) :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경제적 빈곤}) + \gamma_{02}(\text{인구구성의 다양성}) + \gamma_{03}(\text{거주이동성}) + U_{0j}, \\ U_{0j} \sim N(0, \tau_{00}) \\ \beta_{1j} = \gamma_{10}$$

3) 임의절편모형은 위계선형모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오직 절편만이 임의적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임의절편모형의 경우 집단 내 모형의 특징은 절편만이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갖고 나머지의 회귀계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갖는다. 이때 집단 내 모형의 고정효과 회귀계수 추정치의 해석은 다중회귀분석의 해석방법과 같다. 또한 임의절편모형에서 집단 간 모형의 회귀계수는 모두 고정효과를 갖게 되므로 집단 간 모형은 기존의 다중회귀계수모형과 동일하다(곽현근 · 노병일, 2007).

4) 집단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는 개인수준에 대해 편의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하지만, 지역수준의 구성 차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간 분산도의 측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반면에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는 개인수준의 영향력에 있어 추정편의의 위험이 있지만, 지역수준 변수의 차이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Bryk & Raudenbush, 1992; Ulmer & Johnson,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주로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독립변수에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하였다.

$$\beta_{2j}=\gamma_{20}$$

$$\beta_{3j}=\gamma_{30}$$

.

.

.

$$\beta_{7j}=\gamma_{70}$$

4. 분석 결과

1)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안전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3.39점으로 조사대상자인 여성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안전의식 수준은 중간 값(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수준의 독립변수 중에서, 조사대상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빈곤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지역 주민의 약 1%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할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구성의 다양성은 평균 3.12%로 나타나 지역의 인구 100명당 약 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의 거주이동성은 평균 36.16%으로 나타나 인구 100명 중 약 36명은 1년 동안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은 평균 3.08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여성들이 인지하는 공동체 의식은 중간 값(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만 40.23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57.0%)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졸 이상(34.7%), 중졸(6.2%), 초졸(2.1%)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300만 원~399만 원(25.4%)이 4분의 1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200만 원~299만 원(21.8%), 400만 원~499만 원(18.1%), 100만 원~199만 원(14.2%)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는 조사대상 10명 중 7명 이상(73.3%)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거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72.0%로 자가가 아닌 경우(28.0%)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상태(53.4%)와 미취업 상태(46.6%)의 비중보다 약 7%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수준		변수명	구분	평균(%) 또는 빈도(명)	표준편차 또는 백분율(%)
지역 수준 (N=20)	독립 변수	경제적 빈곤		1.15	0.88
		인구구성의 다양성		3.12	3.37
		거주이동성		36.16	9.56
개인 수준 (N=386)	종속 변수	안전의식		3.39	0.84
	독립 변수	공동체의식		3.08	0.48
	통제 변수	연령		40.23	10.47
		교육수준	초졸	8	2.1
			중졸	24	6.2
			고졸	220	57.0
			대졸 이상	134	34.7
		소득수준	100만 원 이하	17	4.4
			100만 원~199만 원	55	14.2
			200만 원~299만 원	84	21.8
			300만 원~399만 원	98	25.4
			400만 원~499만 원	70	18.1
			500만 원~599만 원	39	10.1
			600만 원~699만 원	10	2.6
	700만 원 이상		13	3.4	
	혼인상태	배우자 무	103	26.7	
		배우자 유	283	73.3	
	주거 소유형태	자가 아님	108	28.0	
		자가	278	72.0	
취업상태	미취업	180	46.6		
	취업	206	53.4		

2) 모형분석 결과

[표 3] 위계선형모형 결과

구분		Model 1 Coef. (S.E.)	Model 2 Coef. (S.E.)	Model 3 Coef. (S.E.)
고정효과(fixed effect)				
절편		3.387(0.080)***	3.313(0.170)***	3.311(0.148)***
개인 수준	연령		0.002(0.006)	0.001(0.006)
	교육수준		0.006(0.061)	-0.001(0.067)
	소득수준		0.070(0.022)**	0.071(0.022)**
	혼인상태 (배우자 유=1)		0.047(0.160)	0.036(0.170)
	주거 소유형태 (자가=1)		0.114(0.093)	0.128(0.101)
	취업상태 (취업=1)		-0.084(0.059)	-0.093(0.059)
	공동체의식		0.351(0.069)***	0.359(0.071)***
지역 수준	경제적 빈곤			-0.184(0.046)**
	인구구성의 다양성			-0.039(0.017)*
	거주이동성			0.000(0.004)
임의효과(random effect)				
1수준 분산		0.606	0.571	0.571
2수준 분산		0.103	0.083	0.033
X^2 (df)		79.401(19)	69.774(19)	33.644(16)
확률(P)		0.000	0.000	0.006

*p < .05, **p < .01, ***p < .001.

위계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⁵⁾. 우선 Model 1은 종속변수 분산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나누어 살펴보는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이는 지역수준 자료에서의 변량의 차이만을 분석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분석결과, 지역수준의 무선효과(U)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이는 수원시 해당동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의식이 개인수준뿐 아니라 이들이

5) 연구모형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에 있어 인구구성의 다양성과 거주이동성의 상관관계수치가 0.67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하여 안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VIF가 2.568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수준의 무선흐과가 여성의 안전의식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⁶⁾을 계산한 결과, 안전의식에 대한 총 분산 중 지역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 비율은 약 14.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수준이 차지하는 분산 비율이 5%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위계선형모형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즉,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여성의 안전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투입된 통제변수 가운데, 소득수준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2$).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감소 비율 통계량⁷⁾을 통해 모형 설명력의 증가를 살펴본 결과, 1수준 분산은 약 0.571로, 무조건모형의 1수준 분산(0.606)보다 약 5.78% $[(0.606 - 0.571) / 0.606 \times 100]$ 가 줄어들었으며, 2수준 분산도 약 19.4% $[(0.103 - 0.083) / 0.103 \times 100]$ 가 줄었다. 이는 개인수준의 독립변수가 투입됨으로써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전 모형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Model 3에서는 지역수준 변수까지 포함한 임의절편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거주이동성을 제외한 경제적 빈곤,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지역이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여성의 안전의식이 감소하였으며($p < .01$, $p = 0.001$), 인구 구성이 다양할수록 여성의 안전의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039$). 여기서 1수준 변수만을 투입한 임의절편모형에 비하여 지역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1수준 분산은 변함이 없으나, 2수준 분산은 약 60.24% $[(0.083 - 0.033) / 0.083 \times 100]$ 가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변수가 여성안전의식 차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 중 소득수준은 Model 2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안전의식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집단 내 상관(ICC)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 가운데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 분산량을 말하며, 2수준의 분산을 1수준(개인 수준)과 2수준(지역 수준) 분산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ICC = 0.103 / (0.606 + 0.103) = 0.145\%$]

7) 이것은 1수준(또는 2수준)의 임의효과 변량이 무조건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즉 감소한 변량만큼 새로운 설명변수들이 투입되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의식과 지역사회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사와 돌봄, 그리고 양육의 기능을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이 수행하는 여성에게 지역의 자원과 공간 활용의 기회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노인이나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안전 문제로부터 보다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사회가 갖추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안전하게 인지하는 지역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는 여성 자신을 넘어서 지역 주민 전체의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원시 20개 동에 거주하는 여성 총 386명을 대상으로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공동체 의식과 객관적 지표인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환경이 지역 안전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해체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성 중에서 경제적 빈곤과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안전에 지역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여성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거주지역이 빈곤할수록 여성이 인식하는 안전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이성식, 2000)에서는 빈곤한 지역일수록 물리적인 환경 자체의 무질서한 수준이 높은 경우가 상당한데, 이것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주거 및 근린 환경의 청결성이 지역의 안정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장미혜 외, 2013). 어둡고 더러운 주차장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골목길,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공공화장실 등은 안전하지 못하고 여겨서 이

용하는 것을 꺼려한다(정지범, 2010). 따라서 빈곤 지역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나 낙서 등과 같은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러한 노력을 개개인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환경가꾸기를 위한 지역의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순찰과 가로등 확충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개선 대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방법노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한 빈곤 지역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지역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동에서는 마을순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임인 자율방범대가 1개 이상씩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서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실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에 대하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채워주는 민간주도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율방범대의 활동 내용이나 빈도 등 그 수준이 지역별로 다양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세밀하게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범대의 활동이 지역안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고르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내의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이 인식하는 안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적, 사회적 이질성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도 약화시킨다. 이는 지역에 대한 여성의 안전의식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여성의 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오형석, 2013; 정지원·차훈진, 2014)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사회 문화,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등⁸⁾에 대한

8) 2012년 전체 외국인 범죄피의자는 24,379명으로 체류외국인 수 1,445,103명 대비 1.69%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범죄 피의자 2.69%(1,370,121명)에 비해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2008년 20,623명에서 2012년 24,379명으로 최근 몇

언론 보도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지역에 대한 안전의식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등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문화사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로 외국인들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 언어, 예절을 외국인에게 훈련시키는 일방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교육 방식이 지역 내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 공동체 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주변생활환경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인식하는 사회적 응집이나 감정적 애착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사회해체를 예방하는 지역통제의 기제(Greenburg et al., 1982)로 작동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Schweitzer et al., 1999)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여성들의 소속감이나 정서적 연계 의식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하여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동네 단위 문화 모임이나 오락행사 등 여성이 지역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접촉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모아파트 단지에서는 여성들의 소모임, 도서관, 공동 아동육아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주민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이것이 안전한 동네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장미혜 외, 2013). 결국 경찰력이라는 공적 조직이 닿지 않는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 지역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복지협의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자원봉사회 등 동단위의 주민조직들이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민간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의 5대 범죄 점유율은 43.97%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5대 범죄 점유율이 27.90%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원·차훈진, 2014, 재인용).

끝으로 통제변수 중 소득수준은 여성의 안전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이 경제적으로 빈곤할 경우 안전에 대한 위협은 더욱 더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나 성범죄피해 가능성을 더 적게 느끼며, 자신의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김준호 외, 2010; 장미혜 외, 2010; 류준혁·정승민, 2011)와 일치하였다. 이는 사회적 취약성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낮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와 무질서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Skogan, 1990; 류준혁·정승민, 2011 재인용). 그리고 경제수준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Kanan & Pruitt, 2002), 낮은 소득수준은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범죄두려움을 더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Porter, et al., 2012). 따라서 빈곤한 가구의 여성들이 모여 사는 열악하면서도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리의 조명을 밝게 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밤늦게 외출을 자제 하는 등의 범죄발생의 기회를 줄이려는 자구책이 요구된다.

한편, 선행연구들과 달리 거주이동성은 여성의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이동성을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전입과 전출 건수로 측정하였다. 즉, 동일한 동(洞) 내에서 이동한 경우도 거주이동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거주이동성의 실제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다. 따라서 거주이동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원시 이외의 타지역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안전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간단한 주관적 지표인 ‘안전의식’을 활용하였다. 여성의 다차원적인 안전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폭력경험 횟수’, ‘범죄피해경험 횟수’ 등과 같은 경험적인 안전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연령에 따라 (성)범죄두려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순진,

2012; 이재영·유영재, 2014; Warr, M., 1984)를 고려할 때, 향후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른 여성안전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사이의 인과적 관계나 상호작용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지역의 경제적 빈곤은 개인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소유형태 등과는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지역 안전 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여성을 초점화하여, 이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과 그 개입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여성의 피해경험이나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였던 기존 연구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여성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 환경의 영향을 개인 차원에서 인지하는 주관적 수준과 사회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수준에서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지역의 사회지표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일상적 삶에 보다 밀착되어 이들의 안전의식과 그 영향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보다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젠더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입 전략을 세심하게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곽현근·노병일(2007). 인지된 동네무질서와 사회적 유대가 개인의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2), 217-239.
- 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경(2013). 지역사회무질서에 대한 인지가 범죄 예방을 위한 집합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범죄학회, 7(1), 283-317.
- 김은영(2012).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논집, 8(4), 169-193.
- 김준호·박현수·박성훈(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 김지선(2004).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2), 217-263.
- 김하늘(2011).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 가설 검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순(2007). 비성별적(非性別的) 도시의 모색: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국토계획, 42(1), 35-50.
- 류준혁·정승민(2011). 지역주민의 범죄위험 인식 분석에 대한 연구-구체적 범죄두려움 결정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7(3), 1-24.
- 박금식·하정화·이혜주(2011).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 부산여성개발연구원.
- 박성훈(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 327-357.
- 박순진(2012). 여성의 연령별 범죄두려움의 차이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0(2), 187-209.
- 박정선·이성식(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173-203.
- 수원시(2006).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2010년). 수원시.
- 신우화·신우진(2012).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0(3), 173-183.
- 안상수·변화순·장미혜·전기택·김승연(2010). 여성·아동 안전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오형석(2013).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갈등과 외국인 범죄. 분쟁해결연구, 11(3), 95-114.
- 이성식(2000).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위험해석모델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41, 74-91.
- 이윤호(1996). 한국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 교정연구, 6, 101-131.
- 이재식(1997). 안전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행동-중심적 접근과 인간공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심리과학

학. 6(1), 39-63.

- 이재영 · 유영재(2014). 여성의 성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171-203.
- 이희연 · 노승철(2013).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 장미혜 · 윤덕경 · 안상수 · 김영택 · 이승훈(2008).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장미혜 · 윤덕경 · 염유식 · 이승훈(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Ⅰ).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장미혜 · 윤덕경 · 이인선(2013).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V): 여아 및 여성안전 관 련 정책점검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승민(2011).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151-185.
- 정지범(2010). “한국인의 위협지각 특성과 지역사회 안전에의 함의”.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 자료.
- 정지원 · 차훈진(2014). 외국인범죄의 대응방안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175-194.
- 정진성 · 강욱(2013).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와의 인과관계: 서울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3), 152-161.
- 정진성 · 광대훈(2008).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 단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19(3), 251-290.
- 정진성 · 박현호(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 차훈진 · 정우일(2013). 범죄 두려움의 심리와 지역사회 환경. 한국범죄심리연구, 9(2), 169-191.
- 최유진(2014). 여성친화도시 지역 안전 사업 특성과 과제. 젠더리뷰, 33, 4-9.
- Alvi, S., Schwartz, M. D., DeKeseredy, W. S., & Maume, M. O. (2001). Women's fear of crime in Canadian public housing. *Violence Against Women*, 7, 638-661.
- Buckner, J. C.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71-791.
- Bryk, A., & Raudenbush, S.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Cheung, C., & Leung, K. (2011). Neighborhood homogeneity and cohesion in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Habitat International*, 35, 564-572.
- Cutrona, C. E., Russell, D. W., Hessling, R. M., Brown, P. A., & Murry, V. (2000).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tex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88-1101.

- Donder, L. D., Witte, N. D., Buffel, T., Dury, S., & Verte, D. (2012). Social Capital and Feelings of Unsafety in Later Lif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Place Attachment, and Civic Participation on Perceived Safety in Belgium. *Research on Aging*, *34*(4), 425-448.
- Ferguson, K. M., &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2), 322-349.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anklin, T. W., Franklin, C. A., & Fearn, N.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 204-227.
- Greenberg, S., Rohe, W., & Williams, J., (1982). Safety in Urban Neighborhoods: A Comparis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Informal Territorial Control in High and Low Crime Neighborhoods. *Population and Environment*, *5*, 141-165.
- Kanan, J. W., & Pruitt, M. V. (2002). Modeling Fear of Crime and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The (in)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4), 527-548.
- Kovandzic, T. V., Vieraitis, L. M., & Yeisley, M. R. (1998). The structural covariates of urban homicide: reassessing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post-Reagan era. *Criminology*, *36*(3), 569-600.
- Krivo, L. J., & Peterson, R. D. (1996). Extremely disadvantaged neighborhoods and urban crime. *Social Forces*, *75*(2), 619-650.
- Markowitz, F., Bellair, E. P., Liska, E. A., &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 293-320.
- McCrea, R., Shyy, T., Western, J., & Stimson, R. J. (2005). Fear of crime in Brisbane: Individual, social and neighbourhood factors in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41*, 7-27.
- McMilli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 A theory and defini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Nasar, J. L., & Julian, D. A. (1995).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178-184.
- Porter, J. R., Rader, N. E., & Cossman, J. S. (2012). Social Disorganization and Neighborhood Fear: Examining the Intersection of Individual, Community, and County Characteristics. *Am J Crim Just*, *37*, 229-245.
- Ross, C. E., & Jang, S. J.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01-420.

- Ross, C. E. & Mirowsky, J. (2009). Neighborhood Disorder, Subjective Alienation, and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 49-64.
- Roun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341-372.
- Sampson, J. R., &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Sampson, J. R., Rau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 (2006). Fear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Genderbased contras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85-301.
- Schweitzer, J. H., Kim, J. W., & Mackin, J. R. (1999). The impact of the built environment on crime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The Journal of Urban Technology*, *6*, 59-74.
- Skogan, W. G., & Maxfield, M. (1981), *Coping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C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ith, D. A., & Jarjoura, G. R.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 621-640.
- Ulmer, J. T., & Johnson, B. (2004). Sentencing in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Criminology*, *42*, 137-177.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Wilson-Doenges, G. (2000).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Crime in Gated Commun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32*(5), 597-611.

A study on the impacts of the structural community contexts and sense of community on sense of safety among women

Park Young Hee* · So-Young Mi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structural community contexts and sense of community on sense of community among women. A door-to-door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the individual-level data from 385 women. The social indicators of 20 residential district was collected for the community-level data.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analysis showed that women who live in the community with the higher percentage of the low-class population and the foreigners are less likely to feel that their community is safe. In addition, women who have more sense of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feel that their community is safe. Suggestions were made that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neighborhoods and housing, the building of the reciprocal culture for the foreigners in communities, and the facilitating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Key Words: women, sense of safety, Hierarchical Linear model, structural community context, sense of community

◆ 2015.05.01. 접수 / 2015.05.20. 1차 수정 / 2015.06.01. 게재 확정

* Doctoral students, Kyonggi University(pyh0539@hanmail.net)

** Associate professor, Kyonggi University(graminso@naver.com)